朝鮮日報
五日夕刊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朝鮮日報社

國際青年記念日에 大小集會一切嚴禁

이날을긔념하는뜻으로모히면대소를 물론하고경찰이엄금할방침이라한다

국제무산청년긔념(國際無產青年紀念)데-는 하루밧을격하야 명뒤일로 닥쳐와서 만국의무산청년은 한가지이날을 뜻깊는마음으로긔념하게되얏는데 경성에서는경찰당국의 간섭으로 집단뎍(集團的)긔념을행치못하게되엇스니그는이날을

긔념하는

의미의집회이면 그대소를물론하고 절대엄금한다닭이다

京城第四青年 창립되엿다

지난사일 오후여덜시부터 시내 통동(通洞)이백삼십칠번디에 무산청년 삼십여명이모히어 경성데사청년회 창립총회(京城第四青年會創立總會)를 하엿다는데 규약과 강령을통과한후 집행위원일한사람을 선뎡하고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青年總同盟)과경성청년련합회(京城青年聯合會)에 가맹하기로 결의하엿스며 따러서 지금발긔중에잇는 경긔도청년련합발긔준비회(京畿道青年聯合發起準備會)에 발긔단톄로참가하기를 결의후 동회사무소는통의동(通義洞)칠십일번디에두기로하고 동하오 십일시경에만세삼창으로 폐회 하엿다는데선거위원과 결의안(委員及決議案)은 다음과갓다더라

◇委員氏名 劉鎭俊 韓滄順 閔成九 朴信進 李丙學 金九龍 趙永春 朴鳳獻 李榮永 金英培 金駿大

◇決議案

一、朝鮮青年總同盟과京城青年聯合會에加盟하기로함

一、京畿道青年聯合發起準備會에發起團體로參加하기로함

協友青年會 국제긔념과 형평사의일을결의

지난사일 오후여덜시 경에협우청년회(協友青年會)데삼회총회를 수표뎡 교육협회(水標町敎育協會)안에서 열고좌긔삼항의 결의문과임원을개선하엿다더라

◇改選委員 金益洙 李昌淳 鄭奭鎭 崔順模 李元雄 鄭珍永 崔永德 朴萬人 池光鉉 鄭淳和 金斗鉉 李學奉 林慶鏞 李世克

◇決議事項

一、醴泉衡平社分社에慰問狀을送하는同時에本會代表二人을選定하야京城衡平社本部에慰問함일

一、國際青年데-이를紀念키爲하야懇親會를六日에開함일

一、協友青年會에少年部를置함일 등

忠南論山에서 農民이衡平社員毆打

경찰은모르는데하고잇슴으로 피해자는고소제지데긔하엿다

충청남도 론산군영뎡(忠淸南道論山郡榮町)에서농민들이 형평사원을 구타하여잡시는 큰소동이잇섯다는데

그내막을

들은즉지난팔일은 추석명절로 칠월십오일인바론산일대에는해마다습관에의하야 그날하로를 농민들이모여서 질탕히노는것임으로 금년에도그날을 당한농민들은 재미잇게존들비고소(牛)를삽어집집에 몃근식고기를 나누어먹기로 하고 그이웃동리인 갈산리(葛山里)도여사고가되 작정이되여 형평사원박복동(朴福同)리판동(李判同)에게그것을부탁하엿슴으로 두사람은고기를 가지고권긔영뎡과 갈산리농민들에게 분육(分肉)을하다가 영뎡의 고기가 조금부족되야 갈산리로고기를가지러 갓다가 마츰고기를가지고 자권거들라고 도라오즉엇지하여 갈산리는고기가만코 영뎡은 적게가저왓느냐고하며 너의는백뎡(白丁)놈으로엇재량반의식힌놈을 분명이 못하느냐고 그동리사는조영삼(趙榮三)외

사오십명

이모이어말을하다가 조영삼이가 구타를시작하며다수한 군중은 그놈들밟버죽이라는 소리가 론산이진동하엿다하며 이가티소동이 이러난사건을 론산주재소에서는 권연히모른다고하며 일반형평사원들은 경찰에대한 비난이만흐며 피해자는 진단서를 첨부하야고소를데긔하엿다더라(강경)

振興會에서도 형평사원

대항책을강구하엿다

충남론산에서 농민들이 형평사원를구타 하엿다함은 별항보도와가티 문데가되는바 지난이일에 형평사원들따린 조영삼(趙榮三)의집에서는그동리에잇는진흥회(振興會)림시총회를열고여러가지 다른사건을 의론한 끄그다음에 금번사건인 형평사원구타한것이 문데가되야 그피해자 두사람을대하야 고소를날고 고만두라하매 우리는약한자니 법률에호소할수밧게 업다

고대당한쪽 여러사람들은 협의까지한일이 잇다 하며 그중리운성(李雲成)이란자는말하기를너희가 아모리강하다하여도 우리만콤사람이 부족할리이니 우리는너희를 용서치못하겟다 하며 커녕을처치할방침을연구하자고 백여명사람에게 선언을하고 가부를무룻새거수가결(可決)한바 그리하는것이올타고 만장일치로 손을드럿스며 집행위원은진흥회장의 아들되는리모(李某)로선뎡함새 진흥회장이이러나며 권부를가한을밟하고금용조합서긔모씨의 불가하다는 말로 고만산회되고마럿다더라(강경)

水災後에旱災로

김해십만주민의소동이심하다

지난번수해가 대임심하엿던 락동강연안(洛東江沿岸)인김해군(金海郡)은일만구천여호에인구십만여명이 거주하는 령남유일의농산디이나 국유디와동텩(東拓)흥업(興業)기타회사는 토디와외국인의 소유디를 제하고나면조선사람의 토디는 불과이삼할로서 수확한칠할가량을 디주에게바치고 나머지로 근근히생활하여오는처디에 지난번 홍수로칠할가량의 농작물을 물에떠내려보내고 생명을 나문곡식에의탁하고오던중 련일나려 또나는 한재는 나문곡식까지 태워버림으로 일군주민의민심은 극도로흉흉하게되엿는데일주 놉이상만더계속하면 김해군일대는 영뷔인터가되리라하야 물론이분분하다더라(김해)

中國人、朝鮮人十名 太平通에서亂鬪

아편팔라고졸르는것이동긔로 두나라사람이편싸홈이되엿다

사일오후 아홉시경에 시내태평통(太平通)이뎡목 사십팔번디 뎡창호(鄭昌浩)(三三) 서소문뎡(西小門町) 삼십삼번디 류상손(劉榮孫)(二六) 송연손(宋延孫) 문수산(文壽山)(三三) 주소부뎡 리석권(李錫余)(四〇)등

다섯명은

서소문뎡구십오번디 중국인 홍후잔(洪興棧)(三四) 태평통이뎡목 오십번디 중국인 강극복(姜則福)(三〇) 서소문뎡 일백오번디 류충항(劉忠州)(三三) 남미창뎡(南米倉町) 구십삼번디 중국인 서희승(徐喜僧)(三六) 뎡영승(程永塒)(二一) 등

다섯명과

서소문뎡에서 격투를하야 권긔중국인 다섯명은 각각중경상을 당하야 현장에는선혈이 림리하든중 이급보를드른 서대문경찰서원과 본뎡경찰서원이 급히현장에출장하야 진압에 로력한후중상을당한피해자홍후잔외한명은 즉시서소문뎡뎐중병원(田中丸病院)에입원치료를식히며가해자 뎡창호외네명은 전부 서대문경찰서에

인치하고

방금엄중취됴중이라는데 그원인은 권긔뎡창호가중국인 홍후잔에게 『몰피네』오원어치만팔라함으로홍후잔은 자긔의집에는 업다한즉 뎡창호는홍후잔에게대하야 너의집에잇스니 당장팔라고 협박을함으로 그엽헤잇든중국인이 그무리함을분개하야뎡창호를한번대리엇든바그것이동긔가되어량편에서서로응원메가나와서그와가티 대격투가생긴것이라더라

京城青年會 림시총회

여러가지를결의

시내 재동에잇는 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에서는 지난사일 오후팔시에 김장현(金章鉉)씨 의사회로 림시총회를열고 여러가지사항을 결의하엿는데 국제청년(國際青年)데-에 대하야는다음과가티 결의하엿스며 또는집행위원도 다음과가티 선뎡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國際青年데-에關하야는漢陽青年聯盟의指示에從하되特히當日에會員全體가動員하야 一、紀念勞働을擧行하며二、紀念會員募集데-로하며三、紀念撮影과懇談會를開하야이날의歷史와意義를一般會員에게알게할것

◇執行委員

申周極 金光輝 金章鉉 李敏行 權赫 太陽 宋奉瑀 崔承一 徐廷錫

二十二年만에 故國을밟는旅客

정신병에걸려서남의신세를 고국을오니네집은어대이냐

시내종로경찰서 고등계 에는미국(米國)『씨야틀』라하는 곳으로부터 도라온 동포의장년한명이잇서 그갈 곳을 아지못하야방금 곤경에 싸지어잇다는바이제그자세한 내용을 들은즉이는리진만(李震萬)(일명성창(聖昌))이라는사람으로 원래경성『뒤ㅅ냇골』(현주교뎡(舟橋町)부근)에주소를 가지고잇다가지금으로부터 이십이년전일천구백사년에당시개발회사(開發會社)이민(移民)중에 쒸어『하와이』로건너갓다가 동칠년에 다시미국본토로 옴겨가서 권긔、씨야틀을중심으로 근육로동에 종사하고잇섯던중작년십월부터 돌연경미한 정신병에 걸려병원에입원하야 금년까지 치료를계속하여왓스나 병은 도모지나흘희망이업슴으로 이에그병원에서는 리씨가 근무하던회사(會社)당국과 협의하고 금번에리씨를『애드미랄』하인으로긔선회사(汽船會社)에부탁하야『푸레시덴트、그란트』호라는 배에태워귀국식히긴것인바 서울에 다키는오월이아침이엇스나 그동안 집안과음신이은혀던관계상 어느곳에 그집안이사는지 알길이바이업서 곤경에싸진것으로 리씨가 미국으로향하야 떠나던 당시의

그집에는

리희만(李義萬)이라는친형이잇섯스며 동대문에서 오리가량떠러저잇는양주(楊州)『다래골』에는그삽촌리제선(李濟宣)이란이가사럿다더라

네발가진병아리

양주군시둔면에생겻다

양주군 시둔면신곡리(楊州郡柴芚面新谷里) 삼백십오번디 박긔복(朴己卜)의집에서는수삼일전에 서리병아리를깨여 나리엇는데 그중 한머리는개나고양이가티압발둘、뒤ㅅ발이둘 네발이잇서 괴이하게도 생겻는데 발톱까지도 조금들림이업스나 거러 다닐때에는 압발로만것고 뒤ㅅ발은 뒤로 제처진다는데 동리 사람들은 이상하다하야 은일사이업시 구경온다더라(양주)

桃花洞住民이 總代를排斥

부에진정까지

시내룡산도화동(龍山桃花洞)주민들이총대김충엽(總代金忠燁)을배척하기 위하야 지난달이십칠일에동민대회(洞民大會)를마포청년회관(麻浦青年會館)내에서개최하엿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권긔김충엽은 부당국(府當局)의지뎡총대이엇슴으로 용이히 개선되지 아니하엿는데 이일에 일동이분개한 주민들은 사일 오후일곱시부터 다시데이회(第二回)동민대회를열고격렬한 김총엽배척운동을 하엿는데동대회에서는 후임총대(後任總代)까지선뎡하여 노앗다는바 장차 당국에진정까지하야 긔어코이의 성공을도모할려이라 하며후임총대는리윤구(李胤九)로 내뎡되엿다더라

阿片만들려고 양귀비심은자

징역륙개월불복

함남장진군 남면풍류동(咸南長津郡南面豊流洞) 권하승(權河昇)은지난음력사월 이십일경에 신흥군 동상면광대리(新興郡東上面廣大里)옥간동(玉澗洞)에 잇는국유림안에 약 팔천륙백여평에『아편』제조의목뎍으로앵속(罌粟)의씨를십만본을심은것이발각되야 함흥디방법원에서 륙개월징역의 관결을밧고 이에불복공소하엿다더라

惡漢에게속아서 母女가中國人魔窟에

흡혈귀가튼악마에게속은가련한과부 모녀가모다중국마굴에서피눈물을!

안동현 강안통삼뎡목(安東縣江岸通三丁目)에잇는근일그 이웃에사는조병묵(曺秉默)이는 김윤경(金允敬)(三三)이란녀자와그의 딸영숙(永淑)(三三)을 중국인 마굴에 팔아먹고사실이 탄로됨으로 어대로종적을 감추엇다는데

그사실을

들은즉그녀자 김윤경은 본래평북의주군(平北義州郡)에서살다가 약칠년전에자긔남편을 영리별하고 삼년전인 대정십일년 칠월에비로소 안동현긔장소로 와서 근근히생활을하여오든중 그이웃에사는 조병묵이는 그녀자의 생활이곤난함을 긔회로녀이고또는 어리석은녀자임으로 여러가지 교묘한 수단으로 그의딸영숙이를 중국사람에게 양자로주면 장래에는 큰부자가된다고 꾀이어 구시가에잇는 장소진(張小珍)이란 중국녀자에게 금일백오십원을 밧고지난 륙월이십일경에 팔아가지고 그돈은녀자에게는 한푼도 주지안코 조병묵이란자가 권부소비하후 또한그것도 부족하야 권긔김윤경에게『당신도 혼자이런생활을 하는것보다는 차라리

중국인에

게가서사는것이조타』고여러가지로 꾀이어 금일백원을바다가지고 구시가에서잡회상하는 상모(尙某)에게로면칠권에 그녀자를 보내고는 그금액과 권긔금액합하야 이백여원은 자긔가빗으로 쓰는모양을하엿든바 본래김윤경이란녀자는 어떤마음으로 중국인에게로갓던지는 아지못하거니와 포악한 중국인의 학대가심하고또는생소하야 도모지 마음을부치고잇슬수가 업슴으로 할수업시 그집으로 간지나흘만에 겨우그굴혈을 버서나서 신시가로오다가삽번통파출소(三番通派出所)로드러가 권긔사실을 말하엿슴으로 곳그녀자는 자긔잇던집으로돌려보내고 그의딸 영숙이를 차즈려고 하엿스나 벌서중국인은 그긔미를알고 그아이를다리고어대로도망하엿는바금번

이사건은

권부가조병묵의악행임으로 안동현 경찰서에서는 이자들곳 톄포하려하엿스나 이자도또한종적을 감추엇슴으로 경찰서에서는 방금사방으로수색하는중이라더라(안동현)

同性愛를일코서 自殺하려든娼妓

의지업는창루생활에 의탁하든사람을일코

시내신뎡(新町)십일번디상반루(常盤樓)에창기로잇는 뎐내(田內)ㅅ후지(一九)는사일 오후다섯시경에 자살코자『나이스』라는 독약을먹고 고민하다가 가려잇든원뎐(園田)이란동무의발견으로 응급치료를바더서 마츰내뜻을이루지못하고 방금 고민하는중이라는데 뎐내는 상반루에가서창기로잇든십하(瀧下)ㅅ나쓰와 비상히친밀하게지내며 우름과우숨을가티하야 이래 수년동안을 서로의탁하야 오든바 권긔(삽하)는돌연히룡산(龍山)엇던 창기루로 옴겨가지 안흐면 아니될운명에잇게되여 일권에 엇절수업시 한줄기의애달픈눈물로 서로 애끈는리별을하게되엿섯다

모든것을

『련네』는 자긔가가장 사랑하며 자긔의 모든것을 의탁하고지내여오든 남편을 일조일석에일케된것을 곳업시슬허하야 세상을 비관하고 마츰내 그와가티자살코자함이라는데생명이 위독하다더라

계집빼스는戀敵을 强盜로誣陷投書

그것이발각되여제가먼저검사국에

시내종로경찰서고등계에서는수일권에황금뎡칠뎡목(黃金町七丁目)가(假)삽번디 민학석(閔學植)(四二)이를 검속하고엄중취됴하든중드되어무고죄(誣告罪)로 검사국에 넘기기로 하엿다는바 이제그내용을들은즉 이자는 그권부터 시내초음뎡(初音町)일백사십칠번디에사는 최수경(崔水鏡)(三〇)이란녀자와

정을통하

야지내오든바 얼마권에 이녀자는종로야시(夜市)에서고무신장사를하는 박인식(朴仁植)에게정을주기시작하야웃웃내자긔는배색을당하고마럿슴으로 이자는이것을 분히녀여자긔와 최수경과인사이의 사랑을가장거해하는박인식을업새야겟다하고 즉시충남 론산군강경면(忠南論山郡江景面)리윤식(李潤植)이란일홈으로 충남경찰부장에게 박인식은 강도(强盜)권과자일뿐아니라금번의 련지동권총사건(蓮池洞拳銃事件)과 수창동시국표방사건(需昌洞時局標榜事件)에도비밀히

련락을취

하고잇는무서운사람이니 속히 이자를검거취됴하라는 엉터리업는 거짓투서(投書)를한것이화근이되여도로혀무고죄로검사국구경을가게된것이라더라

歐米青年問題講演

육일남중앙교회에서

시내중앙례배당에서는 륙일(日曜日)오후팔시에 몃칠권에미국서 새로이신학사의 학위를엇고 도라온 김준옥(金俊玉)씨를청하야 강연을할터인데연제는『歐米青年의活動』이라더라

十月一日 國勢調查

그내용은 이러하다

오는십월일일오권령시뎡각에권국뎍으로 시행할 간이국세됴사(簡易國勢調查)에대하야각관계관령에서 예비됴사와 제반준비에분망중이라함은 루루히 보도한바어니와 이됴사에 대하야는 근래 처음되는일이오 아직까지

十七歲少婦 飲毒苦悶

생활곤난은 어린소부에게까지

시내삼각뎡(三角町)구십륙번디 리학래(李鶴來)의 장녀 리소순(李小順)(十七)은 금년삼월에 박일남(朴一男)이란 사람과 정식결혼을하야가지고 자긔의집에서 그동안내외 화락하게 사러왓스나 항상생활이 곤난함을한탄하며 자긔의부부가 가난한친뎡에 부쳐서사는것을 비관하여오든중 사일오후 세시경에 마츰내 자살코자 양재ㅅ물을먹고고민하다 가집안사람에게발견되어 즉시응급치료를 베푸러스나 원악독약을만히먹어서 이미 장위에까지 드러갓슴으로 다시회생할가망이 업슬듯 하다는데 그원인은 우에말한 생활곤난의 관계이라더라

◇集會◇

◇日曜講話會 륙일(일요일) 오후세시부터조선중앙긔독교청년회주최로 동회관내에서 일요강화회를 개최할터인데 연사와 연데는아래와갓다고

演題 三中唯一

演士 鄭春洙

競技運動

開城太極團遠征과 對高麗野球戰

六日午後徽文에서

市內高麗俱樂部에게慘敗를當한開城太極團은지난日曜日을卜하야京城에遠征하라하얏든바事情에依하야六日朝에入京하야同午後三時부터市內徽文球場에서第二回野球戰을行한다는데이번에는兩軍의陣容이자못充實하야볼만하리라한다

세네터스軍優勝

米國二大野球리그戰인아메리칸리그에서와싱톤세네터스軍과費府아스레틱스軍과의페넌트爭覇戰은一進一退의勢로首位를다토든바一日에兩軍이對戰한바七對三으로세네터스軍이優勝하얏다(紐育發信)

女子올림픽大會

朝新主催의第三回全朝鮮女子陸上競技大會는來二十三日에京城師範學校트락크에서行한다

庭球選手權大會 十三日에擧行

朝鮮庭協主催와時代後援의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는來十三日에行하다

멍텅구리 자작자급

(80)

배우연습

(一) 하라는대로만 하라는감독의말에 (二) 원숭이흉내내듯이 흉내만내다가 (三) 볼치를째리는 감독에게 (四) 주먹힘을 다되려서 되립다때렷다

◇明日◇ 國際青年紀念日

추억되는두선구자의혜적

국제무산청년운동(國際無產青年運動)의 긔념일(紀念日)인구월첫일요일은 왓다 일천구백칠년에 청년사회주의자의 국제회의가처음으로『스토-트칼트』에서『칼-、리입크네흐트』의지도아래서 조직되엿나니 이것이곳국제청년운동의 처음되는 국제뎍결속이다 이에 비로소싹이도친봉은피가 뛰노는 청년의활약은갈사록

맹렬

하얏다 그리하야소위로련(老練)한각국사회주의자들로 조직되여 것지아니한력사를가진데이국제사회당(第二國際社會黨) 권례가구주대권(歐洲大戰)의물발을떠라각각자의주의와국제뎍신조를밟가리바리고자국에 도라가 애국운동(愛國運動)을하는그때에인일천구백십오년에 국제청년운『베른』에서대회를열고 비전론(非戰論)을 력설하는동시에 반군국주의 운동(反軍國主義運動)을통렬히이르킨것다 이러케 위험한만인데권중에도 그들은 주의주장을살려와서 마츰내 일천구백십구년에데삼국제공산당(第三國際共產黨)과 아울려 국제공산청년회(國際共產青年會)를나라내여 권세계자본국가를 권률케 하는 무산계급의 탕데진영(陣營)을 건설하게 된것이다 그래서세계무산청년은 이운동의

비롯

을긔념키위하야이날을뎡하엿고 이날을 긔념하게되는때에이즈려야이즐수업는것은 이운동의선구자인『카-르、리입크네흐트』장수이다동시에『카-르』를 추억하는때에 이러나는새로운 긔억은 그와가티거친 바람부려오는『베른』(伯林) 시외에서 독일사회당(獨逸社會黨)에게 참살낭한『로-사、룩셈부르』이니그는『카-르』와가티 무산청년운동의명장인동시에 국제부인운동(國際婦人運動)의명성(名星)이다

사진은오른편이『카-르、리입크네흐트』왼편『로-사、룩셈부르』

勞働者俱樂部 긔성회가 조직되여

지난사일 오후여덜시경에 시내 와룡동(臥龍洞) 백삼십삼번디 텬도교련합회관(天道敎聯合會館) 안에 리일심(李一心)황영록(黃永錄)곽중환(郭仲桓)등 제씨가 모히여 로동자구락부(勞働者俱樂部)긔성회를열고 아래와가티 세부를둔후 위원을선뎡 하엿다더라

一、庶務部 李一心 李明儒

一、組織部 李正洙 尹埴 郭仲桓

一、宣傳部 趙甲教 韓元錫 吳聖煥 金鍾漢 姜水龍 金鵬斌 柳達 崔順厚

종명자

▲시세의변천에따러 독빈한데 금시에몰락하는것이적지못한일이지만근일일본동경에서는 소위 화족(華族)들이 ▲생활이곤난하야이전호사하든생활을못하여그들의친이 매춘부된것이 오십여명이나 된다고한다 ▲경성의귀족들이 권에호사할때 다리고살든 첩들리고 겨방사리로 쫏겨다니는것과비교하야 시세의변천을 큰소리로말할일이다 ▲경찰부장이 각사상단톄의 대표자를 청하야 『자긔네도 사회운동에는 동감이니엇지니』하야 공치사를실컷해노코도 ▲이번국제청년 긔념일이되닛가 집회를 일톄금지한다동감이닛가금지나하엿지동감이아니엇드면긔절을할번하엿군

小說 青衣夜叉 청의야차

金浪雲 譯 盧心汕 畫

七

조금잇다가 무슨비명을 이야기하는듯한속살거리는소리가들리어왓다 그러다가 문이가만히 열리엇다 그러고는이내 그보드러운손이 다시나의이마를집헛다 나는보이지안는눈을 크게떳다 그는이까닭으로 내가잠을깨인줄알고서 걱정스러운듯이 물엇다『주무서서 좀나서요?』

『네 퍽낫슴니다』하고 나는말씀치로 몸을일으키며 대답하엿다

『그런데 퍽오래신세를진듯함니다 하인을식혀서 마차를하나불러주섯스면 조켓슴니다』하고그는말하엿다『아아그 지금은안됨니다』『이러케밤중에 엇더케가서요 그러고 몸도불편하신데 그것은무리야요 편히주무세요 아츰이되면 다나흐실터이니』

『너무나감사함니다』하고나는말하엿다『하나 이이상더신세를질수도업스닛가』

『당신에서 그러케고맙다고하실것가트면 그러면 그고마운것을갑하주시겟슴닛가?』하고그는놀엿다『만일하실수잇다면 좀청할것이잇는데』

『네힘으로 될수잇는 일이면 녹하지오』하고나는 대답하엿다

『네 그러면여긔다가 당신의 성향을좀 써주세요 내명부(名簿)에다가 오늘저녁의 조고만긔념이될터이닛가』

『한데、요새는 잘쓰지는 못합니다』

『그러치만 기름을쓰시겟지오 필적은 고두지안터라도 그것은 낫칠수업는 일이닛가 관게업슴니다』

그러고는그녀 아마 상아로 된듯한 털필대를 나의손에쥐어주엇다

『생일은언제세요?』하고그아롬다운소리는 놉흔다『칠월이일』흡시다』하고나는 우스면서 대답하엿다

그러고 명부책을펴가지고 그는나의손을잡어다가 버이롬을쓰게하엿다

그는나의손에서 털필대를 명부를 가져갓다 그다음에 나는 그의치마자락 끌리는소리로 그가 이웃방으로 가는줄을알앗다 가상한거림자가 나의가슴에 떠나왓다 그는미인일가? 하나、엇쩐던지 그는품이잇고 고상한듯하엿다 그러고그나직한 음악뎍의 음성으로 추측하더라도 그는 나살쯤되는 젊은처녀임에 틀이업슬듯하엿다

어이된 영문인지를 몰라하며 나는 귀를기우리고잇섯다、한 비밀인듯한 나직한말소리가 또동시에 누구인지『소관』의 야곡(夜想曲)을피아노로타기시작하엿다 그싸닭으로 이야기하는 말소리와 부스람다롬을 하는듯한그미도 들을수가업섯다

몃분동안 그밧은 피아노소리로 가득하엿다 그경쾌한 섭세한 솜씨로보아서 그것은녀자가라는듯하엿다 그때에 돌연히 그릇이깨지는소리와 질겁을하는 외웃가튼 녀자의부르짓는소리가낫다 그러고는 무슨무거운물건이 마루우에 떠러지는 털석하는소리가낫다

한쪽피아노소리가그치고그와동시에 남자의 황향한부르짓는소리가 들리엇다—

『이개새기야! 네가엇재서엇재서 그녀자를죽엿니!』

그다음에는 툭탁툭탁 격투하는소리와 나동그라저서 부서지는의자소리와 헐떡헐떡하는갓분숨소리와 중얼거리는듯한 부르짓는소리가 들리어왓다 또사람이 죽을힘을다하야 서로엿안고잇는듯하엿다 미친듯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그들은나잇는방으로 들어왓다 나로발하면 캄캄한 령우인처을 바라보며 놀라고무서워서 몸을썰고잇섯다 그사내의 소리를듯고 나는 새파라케된것이엇다

틀림업시 부슨부서운 비극이 일어난것이엇다 그러고 나의은인인 그녀자가 살해를당하엿는지도 알수업섯다

다른두사람은 누구인지 알수업스나 바로내엽헤서 격투를하고잇섯다 한사람은 죽을힘을다하야 다죽어가는 약한소리로부르지젓다 이소리로와 나는또한사람이 그사람의 목을졸다죽이라고하는 줄을 분명히게알수잇섯다

갑작히 철석하는 둔한소리가 낫다 그것은 의심할것업시천정게처는 소리이엇다、한곳의모시대일、한고민하는소리가낫더

◇天氣豫報 東風雲

◇滿潮 五日 [illegible]

◇日出 [illegible] ◇日入 [illegible]

◇六日 國際青年紀念日

時評

第一 醴泉事件

× 去月中旬에 慶北醴泉衡平支社面에서 同地少年雄辯大會가 開催되엿섯는데 衡平社員되는 張志弼氏가 一場의 講演을 試하엿섯다 그에 對하야 同地方靑年某某은 醴泉靑年會하여 오든바, 去二日의 市場日을 利用하야 「衡平社員이 近者에 매우 橫暴하여 참을수업다, 다 打殺하자」는 喊聲이 洞中에서 이러나며 거기모혀잇던 群衆은 衡平社員들의 집을 向하고 달려들엇다 그리하엿스나 同地駐在所에서 이것을 極力阻止하엿슴으로 群衆은 解散하고 말엇섯다 그리하엿다가 그 날밤에 다시 會集한 農民들은 同地少年團幹部로 잇서 衡平運動을 應援해오든 徐龍伊 金成洙 두 사람을 指摘하야 새白丁놈이라 하고 數百名이 그 집으로 달려드러 前記兩氏를 搜索하엿스나 發見치 못하엿슴으로 그의 家具等屬을 함부로 破壞해버렷다 한다

× 醴泉事件에는 靑年會長이 衡平社員에 對하야 演說한것이 그 原因이 되엿다 玄風事件에는 衡平社員의 少年團의 會合에서 演說한것이 紛糾의 原因을 作하엿다 玄風衡平社員의 講演內容은 只今 알수업스나 醴泉靑年會長의 演說內容이 衡平社員을 侮辱한것임에 反하야 衡平社員의 講演內容은 特權階級의 壓迫階級에 對한 態度를 攻擊하는 點에 잇서서 衡平社員 以外의 人士에게는 多少間 侮辱的 意味를 包含한것으로 解釋될 語句도 或잇섯슬것이다 그러나 前後事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玄風農民의 暴力行動에 出한 그들의 態度를 가장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

憲政會와 妥計

× 日本憲政會의 人口及食糧關聯特別委員會는 朝鮮에서도 現在만으로도 十六萬의 日本人을 移住식힐 餘裕가 잇고 더욱히 水利灌漑事業을 完備하면 一千萬의 日本人을 移住식힐수잇다고 宣言하고 또 滿洲, 蒙古, 西比利亞等을 그 計劃案에 넛코 三千萬人의 大移住案을 計劃하엿다

× 東拓의 移民을 爲始하야 大苦痛을 밧고 잇는 朝鮮에다가 다시 一千萬人의 移民을 計劃하니 그들은 朝鮮사람은 다 朝鮮 밧그로 逐出할 作定인가? 滿洲에서는 只今 朝鮮人의 土地所有權은 姑舍하고 借用權까지도 問題가 되여서 朝鮮사람들이 갈바를 모르고 잇는 이때에 朝鮮으로 一千萬人의 日本人이 또 다시 온다면 朝鮮人은 다 餓死하라는 말인가? 또는 朝鮮사람은 모도다 大阪, 東京, 北海道等地로 移出하야 朝鮮과 日本을 交替로 살로 바꾸어 볼 作定인가?

列國回答正式交付

四日午前公使團에서

(北京四日發) 六月二十四日附로써 中國이 提出한 不平等條約修正要求에 對한 列國의 回答은 旣報 北京公使館에서 起草議決한 草案을 各本國의 回訓도 다 왓슴으로 三日의 公使團會議에서 議決한 後 四日午前公使團으로부터 外交部에 提出하엿는데 日本은 午前十時半에 交附하고 同正午에 此를 發表하엿다

執政府의 緊急會議

條約回答對策協議次

(北京四日發) 關係列國의 不平等條約修正回答을 受領한 中國政府는 對策協議를 爲하야 午後에 執政府에서 緊急會議를 召集하얏다

中國委員發表

關稅會議─

(東京電) 外務省公電에 依하면 中國政府는 關稅特別會議의 中國側委員을 銓衡中이든바 九月二日左와 如히 任命發表하엿다

政府側 外交總長 沈瑞麟 財務總長 李思浩 農商總長 莫德惠 稅務督辦 鍾世銘 交通總長 葉恭綽 稅務署辦 蔡廷幹 또 此外에 財政, 交通 兩面으로 十二名의 專門委員 顧問四十九名을 決定하엿다

委員長은 梁氏

(北京四日發) 沈瑞麟, 顏惠慶氏等의 辭氏에게 말이 되던 關稅特別會議委員長의 椅子는 結局 梁士詒氏의 歸京을 待하야 同氏로 決定할터이라더라

無電提案疑點質問

日本政府에서 芳澤公使를 通하야

(東京五日發) 中國政府가 雙橋無電, 페더랄無電의 契約解除를 爲하야 旣報와 如히 芳澤公使에 對하야 三十日長文의 通牒을 發하얏는데 此를 受한 外務省은

一、中國政府가 從來의 日本의 主張과 米國의 義務를 同時에 解決하라 하는것이나

一、提案中에 「페더랄」會社와의 契約에 基한 權利를 買收한다 하지만 新無電臺를 米國에 使用케 하라는것이 아니냐

等의 重要提案이 曖昧함으로 中國의 眞意를 捕捉하기 難함에 依하야 되집히 芳澤公使에 訓電하야 右疑點 及今回의 提案이 中國單獨의 發案인지 米國의 諒言에 基함인지의 點을 質問하얏다더라

日人武器密賣運動

二萬五千挺을 張作霖에게

(奉天發) 大連某商會支店長과 日本某汽船會社重役과 奉天有力者와 共同으로 張作霖氏에게 步兵銃二萬五千挺을 賣却할 運動을 하는 貌樣인데 只今 二萬五千挺의 步兵銃이 何處에 在한지 疑問이오 有力者等의 氏名으로 察하야 或第二의 原少佐事件이 勃發할지도 모른다더라

英中兩國間貿易

復活希望에 對한 回答

(上海四日發) 去月卅一日 上海英國人商業會議所及英中協會가 聯合會議를 開하고 英中兩國間의 通商貿易을 常態에 恢復식히기 爲하야 決議를 하고 右決議案을 卽時 上海中國商務總會에 보냇든바 四日總會는 該決議에 對하야 左의 回答을 英國商業會議所에 보냇다 總會는 貴會가 今回의 我等에 對하야 多大한 好意를 表明한 事를 深謝한다 最近不祥事件을 될수잇는대로 速히 解決하기를 懇切히 希望하는 바이나 貴會에서도 該問題에 關聯한 英中兩國의 交涉이 充分 圓滿히 解決에 達하도록 今後 尤一層盡力하기를 希望한다 今後 英會와 英中協會 上海支部가 中國民의 愛國的運動에 對하야 同情的態度를 正式으로 聲明하고 且懇切히 交涉解決을 希望하는 旨를 表明하는 事는 將來正義公正의 精神을 基調로 今回의 不祥事件을 반드시 圓滿解決하리라고 信하야 疑치 안는다

賓黑鐵道

工事는 二期로

(奉天四日發) 農者買入豫約을 한 西百二十哩의 「리─루」는 賓黑鐵道에 使用될것인데 右工事는 當初의 三期計劃을 改하야 哈爾賓 呼蘭間은 松花江을 利用하고 呼蘭 海倫間을 一期로하고 海倫黑河間을 二期하야 株式組織으로 旣히 其全株式을 引受하기로 決定하얏다

鐵道用材注文

黑龍督軍

(奉天三日發) 黑龍省當軍은 英國의 中國商人에게 命하야 八十封度 「레루」 四百二十哩及機關車貨車等의 購入豫算을 하라고 命하얏는데 其用途는 不明이라더라

中墺條約發表

(北京三日發) 中國墺太利間의 改訂通商條約은 三日發表되얏다

奉天派의 露中會議

北京政府에 電請

(奉天四日發) 旣報 奉天派의 露中會議交涉會開催結果

一、路政航權 「쭈─불」의 損害

二、張總府의 白露人部下를 解散할

三、北京露國教會는 當分保存할

四、「쭈─불」의 損失을 補塡한 後 通商開始할

五、洮齊鐵道의 促進

右와 如히 北京政府에 電請하얏다

定期飛行計劃

奉天上海間

(奉天電) 奉天上海間의 定期郵便飛行計劃은 東三省航空處에서 着着準備中이든바 今回航空處內에 奉天滬杭線處라는것을 設置하고 劉光京氏를 處長에 任命하야 其準備에 着手하얏다

中東鐵路督辦

于沖漢氏의 運動

(奉天電) 中東鐵路督辦鮑貴卿氏의 辭意가 堅固함으로 그 後任으로 東三省當局에서는 各方面으로 物色中인데 先般中東特別區督辦으로 就任한 于沖漢氏가 後任으로 暗中飛躍을 試하야 張作霖氏도 于氏에게는 好感을 持하얏슴으로

朝鮮人을 排斥함인가

奉天公署의 公布한 辦法

某處入電＝最近 奉天省公署는 朝鮮人雇傭水田開墾總管理辦法이란것을 公布하고 其徹底를 期하고 各縣도 此에 準하야 警察保甲長에게 各各訓令을 發하얏는데 其骨子는 農家에서 朝鮮人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總히 當局의 許可를 受하고 且耕耘以外의 他業은 絕對로 不許하겟고 姓名年齡工賃雇傭期間等을 明記하야 屆出한다는것이다 又寬甸縣과 如한 더 一步를 進하야 水田開拓의 境遇라도 本國民을 雇傭하고 如何한 境遇라도 朝鮮人을 使用치 말 事, 現在 朝鮮人에게 貸付하야 小作케 하는 水田은 本年中에 全部解約할 事, 今後 如何한 境遇라도 朝鮮人에게 土地의 貸付를 不許할뿐 且貸付할 境遇에는 他耕作地에 比하야 高率의 小作料를 徵收하야 漸次 國境外에 逐出할 事等을 規定하야 管下에 訓令하얏는바 此로 因하야 在滿移住朝鮮人의 生活은 極度로 不安에 陷하얏다 總督府가 在滿朝鮮人生活安定을 策한다는 一方에 全히 正反對의 現象을 示하는것이오 移住朝鮮人은 此狀態를 보고 我等을 國外에 放逐하는 策이라고 看破하야 頗히 不安中이더라

不達國民의 責任을 보리라더라

하야 目下 日本當局에 事件中이라

奉天公債抑賣

(奉天四日發) 張作霖은 擁直戰의 結果 二千萬元을 損失한 外에 公債를 發行하야 富豪에게 强制的으로 賣附하얏다

日本士官校에

馮氏學生派遣

(北京四日發) 馮玉祥氏는 日本의 士官學校에 十五名의 留學生을 派遣하기로 決하고 選拔을 終了하얏다

巴爾幹新保障協約

希首相이 三個國에 送達

(나우엔四日發) 希臘外相 「뽈리스」氏는 新 「뽈칸」保障協約의 草案을 「유─고스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及土耳古의 三國政府에 送하얏다 「불가리아」는 後日參加를 招請할터이오 一般으로 「뽈칸」港을 保留하자는 希臘이 本 「뽈칸」保障協約의 提起케된것이라고 觀測되더라

露獨通商意見一致

(莫斯科四日發) 目下 進行中의 露獨通商條約交涉에 對하야 獨逸側은 頻頻히 讓步를 說하야 外務省이 公式으로 發表한 바에 依하면 兩國間의 意見이 一致되얏다더라

米國移民法緩和

在米商人의 妻子에 對하야

(東京五日發) 昨年七月制定한 米國移民法에는 在任外國商人의 妻子를 불너가는데 對하야 一時旅行者와 同樣으로 滯米期間을 制限하얏든바 今回 在米外人의 商人이 그 妻子의 身分을 保障하는 때에는 妻子의 滯米期間도 制限치 안케되얏다는 旨로 松平駐米大使로부터 通知가 잇섯다

伯國排日緩和

(東京電) 外務省着電에 依하면 伯國官憲의 態度가 强硬하야 排日의 原動力인 後援會는 事實上解散되고 同地의 日貨排斥은 一掃되야 兩三日來 日本製品의 去來가 恢復되얏다

新探海潛水機

(나우엔三日發) 獨逸 「엣센」市의 「크루푸」工場에서는 經育의 「화─트만」博士의 設計發明에 係한 探海潛水機를 完成하얏다 同潛水機는 地中海探寶探險隊가 潛水와 考古學其他學術研究를 爲하야 使用할터인데 同隊는 來十五日에 伊太利 「나포리」港을 出發할 豫定이오 本機械는 三千「피트」의 海底까지 潛入할수가 잇다더라

米通信員放逐

土耳其政府에서

(나우엔四日發) 土耳其政府는 米國聯合通信社의 通信員이 土耳其首相에게 부은 便紙를 하엿다 하야 國外로 放逐하엿다 右通信員이 便紙를 한것은 「앙고라」到着後 四日만에 首相에게 面會를 求한바 不許된 外닭이라더라

『레닌그래드』에 지부스大流行

(나우엔四日發) 目下 露國 『레닌그래드』에 『지부스』가 猖獗하야 모든 病院은 滿員인데 當局은 더욱더욱 患者의 增加함을 보고 隔離方法을 講究中이다

伊皇太子正式約婚

(나우엔四日發) 伊太利皇太子 「움벨트」殿下는 近近 西班牙國主의 皇女 「베아트리스」孃과 正式婚約을 하게되얏다

兵工廠長後任

(奉天四日發) 楊宇霆의 兵工廠長의 後任은 吉長鎭守丁長으로 決定되엿다

駐中英使歸任

九月中本國出發

(倫敦四日發) 目下 賜暇歸國中인 駐中英公使 「마크리─」氏는 關稅會議에 出席키 爲하야 九月中旬 歸任의 途에 登하리라더라

濠洲絹稅引下

(멜본五日發) 濠洲政府는 絹物의 輸入稅額을 從價二割五分부터 一割七分五厘로 引下하야 卽日實施하기로 決定하얏다더라

訪日伊國飛機

八日鹿兒島에

(東京電) 日本訪問途中에 잇는 伊太利飛行機는 七日淡水에서 上海로 飛行하야 八月上海經由 鹿兒島로 飛來한다는 旨 上海總領事館에 通知하엿더라

露國文豪訪日

(莫斯科四日發) 「公爵」露西亞文壇의 一流作家 「포리스·아리냐─크」氏와 「노─푸」氏는 十一月頃에 日本을 訪하야 兩氏共히 三個月間 日本에 滯在한다고

多議選擧後

地方官更迭乎

(東京電) 川崎警保局長의 次官昇任과 共히 當分局長事務取扱을 命한바 新任局長은 多額議員選擧終了後 任命이 잇슬 모양으로 同時에 選擧의 結果에 依하야 地方官의 更迭도 行할 貌樣이다

政友候補卅四

(東京電) 九月四日現在 多額納稅議員選擧에 立候補한 政友會候補者와 準政友會候補者는 總計三十四名인바 政友會 本黨其他中立을 合한 非憲政派候補者數는 約七十餘名이오 그 中 約四十名은 當選確實하다고

研究幹部懇請

內相을 訪問하고

(東京電) 研究會常務委員 靑木信光, 小笠原長幹兩氏는 四日午後五時 若槻內相을 官邸에 訪問하고 今後 憲政系의 新多額議員에 對하야 入會를 勸說할 境遇에는 關係업다고 생각한다고 諒解를 希望한다 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다

與黨議員援助

猛烈한 政府態度

(東京電) 貴族院多額議員選擧가 愈愈 五日로 切迫하자 此에 對한 政府의 干涉消息이 山口縣 三松卯事件을 爲始하야 各地에 傳布되엿다 若槻內閣은 新內閣成立時 卽時 地方長官會議에서 地方長官의 政黨化並地方官의 黨派臭味를 嚴重히 警戒하고 內務省 事務當局에서도 今後 此를 許치 아니할 方針이라 하얏스나 若槻內相은 스스로 多額議員選擧를 各地方의 事로 하야 此際相當히 注意할 範圍의 것을 申하고 一方 內務省의 命은 地方長官의 忠實한 하나 憲政會系內閣이 多額議員互選에 有力者의 設되자 其政黨的色彩를 候補者를 三團에 亘하야 하고 政府는 與黨系議員을 支持하며 且川崎警保局長에 依하야 猛烈히 活動하며

各派當選豫想

憲政會亦是有力

(東京電) 多額議員選擧가 目前에 切迫한 今日 各方面의 當選豫想은 憲政會二十五名 政友會十五名 政友本黨十名 中立其他十六名이라더라

關稅率調査會

(東京電) 關稅率調査委員會는 四日午後二時 藏相官邸에 開會 濱口藏相以下 武內, 田中兩次官, 三木參與官, 黑田, 矢部, 神鞭(以上大藏) 中村, 小山(外務), 阿部兩次官, 石黑(農林) 橫瀨, 內條兩次官, 副島(以上商工) 外各委員出席, 前回에 繼續하야 幹事會作製의 關稅率改正案에 對하야 三時間互하야 協議한 結果 稅目四十種에 對한 稅率의 改正을 議定하고 五時散會하얏다 또 本委員會決定稅目이 二百七十餘種目에 及하는바 小麥, 鐵, 一般毛織物, 人造絹物, 自轉車其他重要品目은 審議未了대로 保留되얏다

政府米再賣却

二回에 四萬八千石

(東京電) 農林省着手한 政府米賣却은 當分中止하다가 大阪에서 又는 鑑價가 오今回 更히 大阪에서 阪神地方所在所有米에 對하야 十五日約二萬, 二十五日約二萬五千石의 賣却을 하기로 決定하엿다

航空獨立記念

十日間의 大演習

(東京電) 陸軍航空兵科獨立記念의 特別航空大演習은 九月二十一日부터 十日間에 亘하야 東京府, 埼玉縣, 千葉縣下에 擧行키로 되얏는데 參加飛行機는 六十餘臺로 飛行機에 附하는 모든 武器를 網羅하야 空中과 地上에서 新戰術을 試할터이라 한다

正貨十四億

八月末의 現在

(東京電) 八月末現在의 日本正貨總額은 十四億三千九百餘萬圓으로 그 中 在外正貨는 二億六千五百餘萬圓을 示하야 前月末日在外正貨 二億七千二百萬圓에 比하면 六千七百萬圓이 減少하얏다 此減少는 公債의 利拂에 依함이라더라

日本米作樂觀

次官會議의 報告

(東京電) 新內閣第一個政務次官會議는 官邸에서 開하고 小山農林次官으로부터 日本各府縣北海道朝鮮臺灣等各地의 米作狀況을 報告하야 全般의으로 普通作以上의 作況이라고 斷定的說明을 하얏스며 武內大藏次官은 最近의 爲替變動의 原因은 原棉買付로 因한것이나 不遠에 恢復될것으로 信한다고 說明하얏더라

鮮銀發行稅率

二,三日中引下申請

(東京電) 鮮銀臺銀兩行의 限外發行稅는 制限外發行稅七分이든바 日銀의 限外發行稅率은 去四月十四日 金利引下와 共히 七分을 六分으로 引下하얏스나 鮮臺兩行은 依然七分으로 資金運用上 不便함으로 將來함으로 兩行으로부터 非公式으로 政府에 發行稅引下를 希望하든바 大藏當局에서도 此를 承認하고 一層의 考慮를 與하얏슴으로 二三日中에 正式認可申請을 提出하리라더라

軍事教育

明年부터 實施

朝鮮人에는 無關

朝鮮에서는 十五年度以降에 施行期日其他를 決定한다는 中等學校에 課할 軍事教育은 結局 來年度(十五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하게 되야 政務當局의 諒解를 得하야 閣議는 三日午後 審議室에 回付되얏슴으로 最近會議를 開催하고 決定한 後 一般에 公表할터이다 此問題는 施行하는데에 對하야는 이미 問題도 잇지 못할바이나 其施行範圍에 至하야는 日本과 朝鮮의 事情을 달니하야 日本人 朝鮮人共學의 學校等도 多함으로 解決이 困難하리라 하야 學務局의 協議도 끗나지 아니하얏슴으로 最近 具體案을 作成하야 李學務局長은 三日總督에게도 說明하려하얏스나 當日總督은 官邸에만 이잇슴으로 不得已 審議室에 回送한것이다 案의 內容은 大體 十五年度부터 施行하야 그 範圍는 中學校, 師範學校, 甲種實業學校의 約五十六校로 하고 各學校의 朝鮮人生徒及專門學校約二十校에 對하야는 希望에 依하야 此를 敎授하기로 된 모양이다 勿論 高等普通學校와 如한 朝鮮人敎育을 目的한 곳은 原則的으로 施行치는 아니하나 事情에 따라 各學校에

兵役의 義務를 有한 生徒가 잇는 境遇에는 此를 中等學校等에 轉學케 할가 便宜한 方法을 講究케 할듯하다 하며 敎授時數는 日本서도 學校에 依하야 相違하나 朝鮮에서는 大體 一週二時間으로 四時間 外지의 程度이오 案은 近近決定될터이오 施行에 際하야 所要經費는 各學校가 모다 銃器를 所有한 곳은 거의 업슴으로 約五、六千圓의 豫入을 要한다 하며 一挺約十圓으로 五、六萬挺 此에 要하는 附校의 赴任旅費 二、三萬圓을 加하야 七八萬圓을 要하리라더라

鐵筆寫眞
─(投稿歡迎)─
憲政會의 白晝夢

粟輸入의 影響

中國關稅會議와

國境關稅는 엇덜가

中國特別關稅會議는 前途에 多大한 波瀾을 豫想하는바 朝鮮에 關係로 가장 注意되는것은 滿洲粟의 輸入이다 陸接國境三分一의 關稅輕減이 撤廢되면 粟의 輸入은 相當히 打擊을 밧을것이나 滿洲粟의 朝鮮에 對한 輸出을 主要目的으로 함으로 國境關稅의 引上은 當然滿洲物의 市價를 下落식힐지나 輸入減少는 免치못할것이오 粟價의 低落을 防止하고 朝鮮內生産者에게는 反히 良好한 結果를 生할것이다 다만 輸入業者로는 現狀維持를 希望하는것이 조흘것이나 關稅會議의 前途는 逆料치못할것이나 自國의 輸入關稅의 引下는 不可하다 하지 않는다가 안임으로 必然하면 更히 對策을 講할수도 잇슬것이더라

京穀市場存續

總會에서 決定

京城穀物商組合은 旣報와 如히 三日午後六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總會를 開하고 種種討論한 結果

一、京城으로는 米穀의 現物市場은 十分其必要가 有한 事

二、此際에 休止하는것은 將來京城의 米取引所問題에 不利한 事

三、組合員이 더 조금 勉强하면 市場의 維持는 必然困難치 안흔 事

等의 理由로써 振興의 具體案에 就하야는 繼續研究하기로 하엿다 同市場의 移轉期間은 來十日로써 終了함으로 當然蓬萊町에 臨할것이나 總督府의 諒解를 得하면 現市場에서 繼續되리라더라

米輸出과 代用食

八月中은 共減

總督府稅關調査에 依한 朝鮮米의 輸移出並代用食인 外米粟의 輸入을 보면 鮮米는 八月中의 輸移出이 九萬五千五百六十二石으로 此를 前年同期의 十八萬九千八百三十五石에 比하면 八萬九千八百四十七石이 殆히 半減하얏고 其累計는 四百二十五萬七千五百十二石으로 前年同期의 四百四十萬四千九百八十六石에 比較하야 十四萬七千三百八十四石의 減少이오 次에 代用食인 外米의 輸移入은 八月中이 一萬八千二百八十石으로 此를 前年同期의 五萬七千五百四十一石에 比하야 三萬九千二百六十一石의 減少이오 累計는 十五萬三千六百十一石으로 前年同期의 九萬五千一百十一石에 比하야 六萬四千九百十五石의 增加이다 粟은 八月中의 輸入이 十九萬五千八百十石으로 前年同期의 十萬三千八[illegible]石에 比하야 九萬一千九百四十八石의 增加이다 累計는 百五十六萬三千五百八十三石으로 昨年의 百二十二萬五千四百八十七石에 比하야 三十三萬八千九十六石의 增加를 示하얏더라

利權運動猛烈

取引所令과 地元側의 對抗運動

京取市場은 勿論 京取의 業績도 그다지 조치못한 이예 突然히 三品市場云云의 說이 傳하야 一部有識者間에는 此를 一笑에 附하나 煙火不離의 關係로 事業의 成否는 如何間 一部策士間에 問題를 삼는 事는 事實이다 探聞한 바에 依하면 如斯한 新設市場은 所謂 敵本主義로 出한 者로 三品市場이 目的이 아니오 取引所令發布를 促進식혀 其時機가 到來함을 伺하야 엇더한 利得을 하라는 魂膽인 事는 四圍의 事情으로 보아 無理가 아니라고 보는 이가 만타 또 이에 關聯하야 一部有識者間에 問題되는 바는 憲政系代議士의 鮮內組織以來 同系統代議士의 渡鮮하는 者 三十名에 及하고 그 中 務要運動은 五名을 除한 外에는 全部 무엇이던지 利權을 得하려고 渡來한것이라고 傳한다 그러하야 取引所令頒布運動에 對하야 地元有力者 五六名이 反對運動을 開始한 모양이나 取引所令問題에 關聯하야 極秘密裡에 暗中飛躍을 하는 모양이다 要컨대 三品市場이라는가 何者든지 何等의 形式으로 利權運動과 關係한것인듯하다더라

當局도 再調査

取引所令에 對하야

取引所令을 中心으로 利權運動者가 暗中飛躍을 한다는 事實에 對하야 本府에서는 그의 範圍도 살지 안는다 卽 憲政系代議士一派가 設使 我黨內閣을 편다 할지라도 第五十一議會의 進行如何로는 我黨內閣도 如何히 될지 모르고 又議會가 無事終了된다 할지라도 利權運動에 依하야 輕히 解決할것이 아니라 하야 極히 冷靜히 處理할 方針인듯하다 그러나 多年의 懸案인 取引所令은 大體로 發布할 方針으로 決定한 親機로 前任者에 依하야 作製한 成案에 幾分의 改造를 加하야 再次調査에 着手한듯하며 그러나 이것이 成案되기까지는 一個年을 要할것이오 只今 形便으로는 大體方針을 決定할에 不過하리라고 觀測되더라

鮮銀副總裁決定

(東京電) 鮮銀副總裁는 欠員인대로 今日에 及한바 整理, 涉擇其他手續의 一段落을 告하기 前에 此際 爲하야 行務多端함으로 副總裁를 選任할 必要가 잇다고 하야 候補者도 決定되얏슴으로 不日任命을 볼지오 일는지 八日夜閣議에서 決定發表하리라더라

實科高女制廢止

(東京電) 文部省에서는 過般來 實科高女의 名稱이 자미업시 되는 傾向이 잇슴으로 도이에 對策을 考究中이던바 結局 右制度를 廢止하기로 決定하엿다

鐵道學校資格認定

(東京電) 九月五日附 文部省告示로 朝鮮總督府鐵道從事員養成所本科는 文官任用令第六條에 依하야 認定된 旨를 發表하엿다

屠獸場移轉終了

東大門外의 京城府屠獸場은 이미 新築落成되야 目下移轉中이든바 全部移轉을 終하얏슴으로 來月中旬頃을 期하야 移轉披露를 할터이라더라

辭令

(東京電) 四日左와 如히 發表하얏다

內務次官 川崎卓吉

警保局長事務取扱을 命함

人事消息

▲朝鮮之光社 今般 內資洞一三五番地로 移轉, 光化門私書函二〇番에 加入

▲鈴木軍司令官 어느 事情을 因하야 鈴木朝鮮軍司令官의 行動은 秘密에 附하얏든바 同氏는 二日午後四時 長春着, 各所를 視察하고 一泊한 後 三日朝九時 吉林에 赴하야 視察後 八時歸來 長春一泊, 四日朝八時發 大連에 向하얏는데 參謀岡大佐, 副官江坂大尉隨行, 滿鐵의 高柳中將, 菊地大將도 同伴하얏다고(長春四日發)

▲三矢宮松氏(警務局長) 道立醫院開院式參列次로 六日朝開城出張

▲南宮營氏(殖産局事務官) 八日朝平安北道出張

八面鋒

○ 總督府新廳舍의 壁畫는 三田三造畫伯에게 委托하야, 目下執筆中인데, 潤筆料一金十萬圓也, 群小畫家들, 침만 생키도 解渴은 될듯

○ 憲政單獨內閣成立當時에도, 留任되엿던 湯淺內務次官이, 突然免官되엿다, 多額納稅議員을 쉬 選擧한다지

○ 選擧千秋會는, 桃色醜聞으로야는 日本에서, 多少問題가 되리라는것은, 進步한 現象인가

商況 五日前場

仁川期米

	昨後止	今前止	比較
當限	─	─	─
中限	三八、六〇	三八、五〇	一〇低
先限	三四、〇〇	三四、三四	[illegible]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七、八一	三五、九一
二節	─	三七、九〇	三四、〇一
三節	─	三七、九〇	三四、二五
四節	─	三七、八〇	三四、二〇
五節	─	三七、八〇	三五、〇〇
六節	三八、四〇	三七、九〇	三四、五〇
七節	─	三八、二〇	三四、二〇
八節	─	三七、九〇	三四、〇〇
九節	三八、三〇	三八、二〇	三四、二〇
十節	─	三八、〇〇	三四、二〇

前場反高

昨後場服止三十七圓六十一錢의 保合을 入하야 三十四圓〇一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前場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七圓五十錢인고 又復十丁低落을 據하고 三十七圓九十錢에 場을 始한 後 阪地五十錢의 三番同事로 七節九十一錢外지 反撥하는據하고 四圓二十錢으로 奔騰하더니 阪地八節七十六錢인 一擧十五丁의 反落을 受하고 三十四圓으로 崩翻하엿다가 結局 阪止八十七錢의 報가 相殺하야 十四錢에 場을 止하니 寄保의 差는 三十丁이며 阪仁의 較는 三百六十六丁이더라

當分繰返乎

本月은 厄年의 天災의 波瀾이 多한 時期임으로 于今 安心賣買를 決하지 못하는 觀機이나 二百十日은 旣히 順過하엿고 二百二十日도 無難히 經過함이 多함으로 年十分의 九는 豐作으로 볼수잇스며 따라서 日本米六千萬石以上의 收穫은 無慮할줄로 豫想하는바 果然 어느 程度外지의 高價를 現出할는지는 未知이나 此一時的偶然의 時勢를 買進하는것보다 찰하리

反撥의 機會

를 利用하야 買方策을 勝하는것이 오히려 得策이 안일가 한다 現下各地市場의 形勢는 縫일진대 四圍의 情勢가 浚然히 高價를 許치 안흘뿐 아니라 突返의 步調가 잇는 때에는 반다시 그만한 反動落이 잇슴으로 繼騰할 餘力이 窮乏한 中인데 此際 三十四圓臺에서 操合하다가 엇더한 動機를 待하야 一大分岐를 演하리라고

理想賣도 亦難

時日을 經함에 사독 新米의 氣分濃厚하야 阪仁共히 擡頭할 餘力이 無한 貌樣이다 一係直下의 形勢는 約百丁의 反動을 示하더니 反히 五十餘丁의 低落을 告하야 三十四圓臺를 中心으로 하고 一張一弛할뿐이다 果然 豫想의 說과 共히 本年度日本米收穫이 六千百萬石이라 하면 實際에 入하야 엇더한 時勢를 演出할가? 日本正米三十五圓外지는 無碍히 下落되리라는바 然而 其際의

農家方針

은 또한 엇더할가? 勿論 農家의 腹案은 低價에는 絕對不應하야 어느 程度의 高價를 見한 後에야 賣出하게 될터인즉 아모리 豊作의 米일지라도 理想的으로 賣緊하기가 또한 難하리니 다 이러한 關係上 十分考慮한 後 方針을 確定하는것이 得策일듯하다고

仁川正米鈍狀

期米의 反撥과 共히 正米界도 急落後幾分反動을 告하더니 本日은 精白米의 三十錢反落을 먼저로 其他는 依然不變狀態인데 標準價는 左記와 如하더라

(註)玄米三等	三九、七〇
四等	三九、三〇
無檢査米	三五、五〇
一等精白米	三六、〇〇
在來正租	一一、七〇
改良正租	一一、九〇

大阪期米

前場		止	
當中	三八、四八	當中	三八、八九
一節	三四、〇〇	六節	三四、八一
二節	三四、〇〇	七節	三四、七一
三節	三四、二〇	八節	三四、九六
四節	三四、五〇	九節	三四、八六
五節	三四、三〇	十節	三四、八〇

各地期米

前場	初付	大引
東京	三九、〇一	三九、四六
兵庫	三七、二六	三七、六六
下關	三七、四五	三七、五五
桑名	三七、六一	三七、八四

株式 五日

京取市場

京取短期取引

前場	初付	大引	高價	低價
京取	二二〇	─	─	─
鐘新	─	一二四六〇	一二四七〇	一二四六〇
大新	八五〇	八五〇	八五〇	八五〇
仁取	─	九一〇〇	─	─

前場伸悩

(昨日終價와 前場終價比較)

京取 保價 鐘新 三〇高 大新 二〇高 仁取 保價

大戾期待薄

昨後場引際에 反戾된 鐘先은 今朝 大阪大新이 八十三圓丁으로 寄付에 同新은 八十二圓三十錢으로 五十錢에 跳返이 엇스나 大戾는 期待하기 不可能한것이엿섯다 하야 三十錢에서 十錢으로 低하엿고 다가 阪止二圓九十錢引의 三圓大引으로 伸悩하엿더라

强材料에 鈍感

今朝는 綿系의 「스탑」株가 一弗高로 續伸이나 相場은 彈力性이 乏하야 倂히 强材料에 鈍感이엇슴으로 新規買는 躊躇할 實情이엇고 또 그 反面으로 秋高豫想이 滿滿한 關係로 實에 利치 못할것이라 하야 買方針을 樹立하는 者도 업시 活氣가 업는 商情이엇더라

分岐點은 豫算

金融事情으로 相當히 買上된 터임으로 以上의 高價는 新規의 好材料가 突發키 前에서 難期이오 活氣잇는 商狀에 轉치 못할것이라 하야 保合圈內彷徨豫想이 一致되는바

金融界 는 放出된 資金이 아즉 地方으로부터 回收되지 못한 一面 安田銀行의 預金協定違反問題가 解決되지 못한 關係가 잇서 豫想되든만큼 金利는 低下되지 못하얏고 日銀

再利下 도 現狀으로 보면 거의 豫測할수 업는 터임으로 新規買를 鈍케 하나 또한 그 反面으로 日銀의 再利下를 不行함은 現在의 警戒嚴重을 延長케 하야 一般人氣로 하야금 依然警戒心을 抱케 할지니 一般金融은 將來緩和될 一大原因을 作할것이라 하야

突込費 도 警戒하는 中이나 今後의 問題는 政府의 昨年度豫算이 如何히 査定될가 하는것이니 萬一 前年度豫算보다 膨脹될것가트면 多少의 好景氣를 보아 株界도 活躍할 原因이 되겟고 憲政會의 持論대로 緊縮政策을 徹底히 實行하야 豫算을 極度로 緊縮할지면

金利上 에도 그 影響을 不免케 되어 人氣는 動搖케 될것이라 하야 專혀 政府의 豫算査定을 注目하는 情勢이엇더라

京取强堅

京取는 依然히 賣物이 驟하야 弱堅한 成行을 示하며 二十二圓十錢에 六十枚의 商內가 잇섯는바 大新低에도 刺戟되야 엇슴으로 大新이 屈한 今朝에는 더욱이 强含이엇스며 仁取도 九十一圓丁에 大引되어 小口의 手合이 잇서 保合이엇더라

當日取引

朝鮮火災株가 七圓五十錢에 南株介二十枚로 當日取引이 잇섯더라

大新長期取引

前場에 大新이 八十四圓에 先限物의 取引이 잇섯는데 成濟과 新田의 各三百枚株介로 商內六百枚이 엇더라

前場諸株步調

▲京取 二二〇─ ▲鐘新 一二四七〇─一二四六〇─ ▲大新 八五〇─八五一─八五〇─八五二─八四〇─八五〇─ ▲仁取 九一〇〇─

諸株賣買

▲京取六〇(賣)金秀、(買)南市川 ▲鐘新四〇(賣)新田(買)洪市川 ▲大新二〇〇(賣)吉見白井南(買)新田市川洪成濟 ▲仁取二〇(賣)洪(買)成濟

大阪短期株式

前場	初付	大引
鐘新	一二四四〇	一二四四〇
大新	八三〇〇	八二九〇

大阪短期步調

▲大新 八三〇─八一〇─八三〇─ ▲鐘新 一二四二─一二四〇─

大阪長期株式

株名	前付	前止
鐘紡	二六八〇〇	二六八五〇
同新	一二五七〇	一二六一〇
大株	九五九〇	九六〇〇
同新	八三八〇	八四二〇
郵船	六九九〇	六九九〇
同新	二四六〇	二四六〇
商船	四五一〇	─
同新	─	─
日糖	─	─
東紡	一二一〇〇	一二一〇〇
大株中引	一六八七〇	一六八九〇
大株新	─	[illegible]

大阪三品

月限	前付	前止
九月限	三二六五〇	三二七〇〇
十限	三二三四〇	三二三七〇
十一限	三一九七〇	三一九四〇
十二限	三一七〇〇	三一六九〇
一限	三一四七〇	三一五〇〇
二限	三一四三〇	三一七七〇
三限	三一二〇〇	三一一六〇

橫濱生絲

	前付	前止
當限	二〇六五〇	─
先限	二一一〇〇	─

朝鮮銀行券

發行高	七七、四二八	[illegible]
正貨準備高	二八、六〇〇	[illegible]
保證準備高	四八、八二八	[illegible]

延取引 五日

群山 賣買高

全羅三等 三九、三〇 同四等 三八、七〇

	九月中	九月末	十月中	十月末
一回	─	─	─	三四、六〇
二回	─	─	─	三四、四〇
三回	─	─	三八、〇〇	三四、四〇
四回	─	─	─	三五、一〇
五回	─	─	─	三四、八〇
六回	─	─	─	三五、〇〇

釜山 賣買高 六千石

穀良 三九、七〇 神力 三九、七〇

	九月中	九月末	十月中	十月末
一回	─	─	三七、〇八	三五、七八
二回	─	─	─	三五、九九
三回	─	─	─	三六、〇八
四回	─	─	─	三六、〇八
五回	─	─	─	三六、四〇
六回	─	─	三七、三五	三五、八八

大邱 賣買高

穀良 三八、四〇 神力 三〇、六〇

	九月中	九月末	十月中	十月末
一回	─	─	─	三五、五〇
二回	─	─	─	三五、六〇
三回	─	─	─	三五、八〇
四回	─	─	三六、七〇	三五、七〇
五回	─	─	─	─
六回	─	─	─	─

京城穀物市勢(五日)

白米	三八、〇〇	三七、〇〇
地稻	一八、〇〇	─
合格(玄)	三八、〇〇	三六、九〇
大豆	龍山	一二、〇〇
	長淵	一二、〇〇
	鐵原	一二、三〇